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이 가 옥

(성공회대학교)

우 국 희

(서울기독대학교)

최 성 재

(서울대학교)

[요 약]

오늘날 노인관련 정책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노인독립이다. 본 연구는 독립의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독립이 실제 노인들의 관점을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립, 의존, 삶의 질 등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의미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 공간적 독립, 신체적 자립 등은 노인들에게 외형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노인들은 이러한 독립을 구성하는 보다 내밀한 의미들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인식하는 독립의 개념은 사생활, 자존감, 자율성, 자유 등의 핵심적 개념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의존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존은 독립과 마찬가지로 그들 경험이 존중되는 삶의 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독립, 참여 등과 같은 개념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최근의 정책은 여전히 노인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노인, 독립, 의존, 자존감, 자율성, 사생활, 자유, 참여

1. 문제제기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노인 개념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이다. 즉, 의존적 존재로 노

*이 연구는 2003년도 유한김벌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인을 규정짓는 과거의 획일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노인과 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의존자, 피보호자, 무능력자, 병약자로 바라보기보다는 주체적, 자율적, 건강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노인에게 덧씌우며, 노화 또한 인간의 어둡고 불행한 현상이 아닌 ‘생산적’, ‘활동적’, ‘성공적’, ‘건강한’ 현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반에는 의존에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독립(independence)’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새로운 세기의 노인을 위한 정책은 노인이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하였고(Davey, 2002: 97),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은 의존 문제 그 자체보다는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영화·임성옥·공정원 공역, 2001: 66). 일본은 90년대 중반 신폴드플랜이 마련된 이후 노인을 제2의 현역세대로 규정하고 보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긍정적인 노인 상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노인정책 제안 보고서에 독립 혹은 자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노인의 독립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국가로서, 1990년대 초 “Caring for People”(DoH, 1990)에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을 옹호하였고, 이후 블레어 정부의 정책 백서인 “Modernizing Social Services”(DoH, 1998)에서는 “독립 촉진(promoting independence)”이 노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맡았다. 영국 정부는 과거의 서비스 정책이 의존적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의 서비스 정책의 초점은 독립적인 사람에게로 전환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즉, “의존적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기존의 서비스와는 달리 앞으로 성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주된 원칙은 “능력과 잠재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임을 제안했다(2.5조).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는 독립적인 사람을 보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이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노인의 독립은 정치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그것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데는 일반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독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독립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이 갖는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독립이 노인의 관점에서 끌어내어졌다고보다는 다른 인구집단, 즉 정책관련자, 정치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립 개념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해 왔던 의존의 개념을 대체함으로써 노인차별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점점 증대되어 가는 고령화의 부담을 노인들 자신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노인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전문가의 견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노인차별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기존의 의존이라는 개념이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간을 구분 짓는 노인차별주의를 양산했다면 구체적 현실이 결여된 독립이라는 개념은 노인집단 내에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독립과 의존을 대립되는 쌍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그 둘간의 역동성이 무시되고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논의는 의존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독립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가? 독립이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가?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의 개념은 제거되어야 하는가? 최근 일각에서는 의존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와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존은 병리나 손상이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사회생활이자 대인관계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브레친(Brechin, 1998)은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고 하면서 의존을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한 부분임을 강조했다(Henderson and Forbat, 2002:672). 김선(Gibson, 1998)은 어느 시점에서 노인들의 의존은 논의의 여지가 없고 줄어들 수 없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노인의 의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의존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노인을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재구성하려는 현재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의존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독립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의 독립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독립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사실, 독립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러한 권리 자체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의 문제는 전략으로서의 독립 개념의 활용에 대한 것이며, 독립이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가이다. 추상적 차원에서의 독립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목표이지만, 구체적, 현실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독립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개념의 이해방식에 따라 노인정책의 방향과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이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독립과 노인정책 간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독립에 대한 노인들 자신의 인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독립이라는 개념이 해체되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될 때 노인정책과 서비스의 목적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실과 정치적 수사(retihoric)간의 괴리를 좁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노인문제의 사회적 재구성 : 의존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

오늘날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의 독립을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사실, 노인과 독립이 연결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노인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서, 그 이전까지는 노인은 의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의존은 오랫동안 노년학 문헌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다.

노화가 사회문제로서 확인된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적어도 노인들은 의존적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인식되었다. 즉, 노인들은 가난하고, 취약하며,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차별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김정석·김영순 역, 2000: 37).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의 노력도 모두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에 맞춰져 있었으며, 사회정책의 주된

목표도 따라서 노년기의 소득보장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령연금체제로 복지국가라는 말에 걸맞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지출이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노인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노인의 의존과 무력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Walker, 2000: 305), 대체로 이 시기의 노인정책은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보면서도 의존 그 자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수용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이러한 사고와 개념에 중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노인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노인의 의존은 사회에 부담을 주는 짐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부담감이란 용어는 처음에는 주로 노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의존은 보호자의 부담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의존과 부담감간의 연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가해자로, 보호자를 피해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강화시킴으로써 노인과 보호자간의 대립적인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즉 노인은 일반적으로 보호만 받는 사람으로, 노인의 보호자는 개인적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Henderson and Forbat, 2002: 671). 노인의 의존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힘들어졌으며, 그 결과 노인의 욕구는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욕구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호자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는 보호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DoH, 1999: 11), “보호자를 돕는 것이 피보호자(노인)를 돕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이다”(DoH, 1995)라는 영국 정부의 진술에서처럼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인이 아닌 노인의 보호자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국가 재정의 위기는 노년기의 의존을 신체·정신적 장애를 넘어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노인인구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대한 공포로 복지국가를 둘러싼 낙관론은 사라지고 노인에 대한 지지는 더 이상 당연시되고 있지 않다. 연금이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의 공적 지출의 지속적인 성장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증대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으며, 노인관련 분야의 사회적 지출이 우파 정부의 정치적 공격의 주된 타겟이 되었다. 이제 노인인구는 서구경제의 짐으로서 보여지고 있다(Phillipson, 1998: 18). 노인의 의존이 공적 재정의 악화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인의존을 줄이는 것에 관련된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의존의 감소를 위한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의존자의 수를 줄이는 것, 둘째, 의존의 정도를 낮추는 것, 셋째, 의존의 영역을 이전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노년기 의존은 어느 시점에서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현재의 의료적,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 의존자의 수나 노인 의존의 정도가 줄어드는 신호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의존을 감소시키는 실현가능한 전략은 의존의 대상 영역을 이전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Gibson, 1998: 204). 이의 구체적인 전략은 공적 부문에 대한 의존을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에 의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결국 노인의 의존이 아니라 노인의 공적 의존일 뿐이다.

그런데, 보다 최근에는 노인의 의존 자체가 줄어들 수 없는 것이라면, 의존을 줄이기 위한 사후 노력을 하기보다는 독립을 촉진시킴으로써 의존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이것이 노인들 개인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될 수 있음이 주장

되고 있다. 독립이 비록 이들 주장에서처럼 인본주의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의 독립은 의존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의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영국의 정책백서에는 노인 대상 서비스의 주된 원칙으로는 독립을 강조하는 반면, 아동 서비스 영역에서의 우선 순위는 보호(Protection)를 내세우고 있다(DoH, 1998). 이는 현대 사회가 이중적인 잣대로서 의존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기의 의존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그 이외의 형태, 예를 들어 노년기의 의존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독립이 노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조가 아닌 기존의 틀 안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간략히 노인의존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노인의 의존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관계에 기반된 의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독립, 자립)으로, 그리고 노인과 보호자의 관계는 정서적 친밀 관계에서 단절되고 양극화된 대립 관계로, 의존의 해소는 보호와 지지 제공에서 의존 영역의 대체를 통한 공적 부담의 경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정책에 구현된 독립의 의미

독립은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는 훨씬 다양한 의미로 구체화된다. 전문적 실천영역에서, 정책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활용되는 노인독립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전적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독립을 구성하는 다양한 의미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립이 자율성(Autonomy)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바네스(Barnes, 1991)는 독립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사고과정으로 규정했는데, 이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은 곧 자율성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능력,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추구해 나가는 능력,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Vernon and Qureshi, 2000: 256). 개인의 자율성은 최근 노화 및 건강보호 분야에서 가장 지배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

독립이 자율성의 의미로 규정될 경우, 노인의 독립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된 전략은 선택권과 참여기회의 확대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나 원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왔고, 그 결과 영국에서는 직접지불체계가 도입되었다. 직접지불법(Direct Payments Act)의 통과로, 장애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원조의 특성과 질을 그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현금급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 원조자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비장애인과의 평등성을 높였으며, 독립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Vernon and Qureshi, 2000: 274).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의 “Modernizing Social Service”(1998)

는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큰 통제력을 제공해 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돈을 쥐서 케어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2.14항)임을 제안하면서, “직접적 지불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그들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새로운 자유와 독립을 제공해 주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65세 이상인 사람들도 직접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연령 제한을 없앨 것을 결정”(2.15항)했음을 진술했다. 이는 결국 직접적 현금 지불이 삶에 대한 보다 큰 통제력과 새로운 자유 및 독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노인영역에서도 직접지불방식을 통한 선택권의 증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아주 최근이며 매우 드물다.¹⁾ 현금지급 대신 노인관련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노인들 자신의 참여를 장려하는 형태가 좀더 일반적이다. 참여는 주로 자신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지방정부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노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Caring for People(1990)”에서는 독립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는 것(Jenkins, 2001: 85), 즉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고,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 및 건강보호 전문가들에 의해 노인들의 독립된 삶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1990년 환자 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High, 1991: 613).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서도 노인들이 자신들의 욕구 평가와 서비스 전달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의 참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을 적극적인 소비자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낳았고, 나아가 노인을 위해(for) 일하는 개념에 대립되는 것으로, 노인과 함께(with) 일하는 새로운 방식이 전문적 집단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Bernard and Phillips, 2000: 46). 비록 노인 영역에서 임파워먼트나 소비자주의의 개념은 실제로서의 의미보다는 수사학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집단이 나 노인옹호집단의 출현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

독립의 또 다른 의미는 자족(self-sufficiency)이다. 자족은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자립은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독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도 자립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국무조정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2002: 45). 독립을 경제적 자립으로 규정할 때, 자립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으로는 고용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최근 노인고용정책을 새롭게 강조하는 데에서도 입증되는데, “Modernizing Social Services”의 2.18항에서는 고용이 독립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경로 중의 하나임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생산적 노화정책”은, 협소하게 정의하자면, 노인의 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노인의 노동시장에의 철저한 참여를 강조한다(Davey, 2002: 97). 과거 강제퇴직이 노인의 경제적 의존을 구조화한 방식이었다면, 노인고용은 오늘날의 노인 독립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영국의 경우, 정책 백서 “Modernising Social Services”에서 직접지불제를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지방당국들은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은 사고과정 혹은 경제적 자립과는 별도로 신체적 자립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쇠퇴기로서 노년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도전하고, 노인을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지위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위로 바라본다(Phillipson, 1998: 18). 신체적 측면에서의 독립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용어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로, 가능한 한 오래 동안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강조한다. 앞서 생산적 노화가 경제적 측면에 비중을 둔 것이라면, 활동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적 측면에 연결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Davey, 2002: 96).²⁾ 건강의 의미로서의 독립을 강조할 경우, 이를 실현하는 정책의 초점은 예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이미 독립을 상실한 의존인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직 독립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낮은 수준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정책의 주된 방향이 자립이나 건강에 맞춰져 있다면, 이는 노인의 일부분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과 동시에 조기퇴직의 성장으로 노년기 자체가 상당히 확장되었다.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 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이질적인 집단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년층을 제3의 연령과 제4의 연령으로 구분짓기도 하는데, 전자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층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최고령의 장애 및 질병의 고통을 받기 쉬운 연령층을 지칭한다. 이러한 노인층의 구분을 견지한다면, 최근의 고용을 통한 독립 증대와 같은 정책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층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증의 장애인노인은 관심밖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질병으로 허약한 사람들에게 있어 의존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독립 강조는 결과적으로 이들을 더욱 사회 주변부로 몰아낼 수 있는데, 이들은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가장 무능하고 능력없는 사람으로 계층화되기 쉽다. 현재의 정책이 노년층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노인들만을 골라내는, 과거의 구빈법적인 사고가 부활하여 현재의 노인층에 적용되고 있다(김영화 외 공역, 2001: 30)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독립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노인독립은 자율성으로서의 의미, 경제적 자립으로서의 의미, 신체적 자립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노인독립은 삶의 전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다소 제한된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의미에 따라 취해지는 노인정책의 전략 또한 상이하다.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대한 노인 의견의 반영, 고용기회의 증대, 예방적 차원에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에 초점을 두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일부 실현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수사학적인 의미가 더 크며, 현실에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장애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2) 활동적 노화는 또한 경제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생산적 노화와 연결되기도 한다. 1999년 EU는 활동적 노화의 5가지 요소로서, 보다 오래 일하기, 퇴직시기를 늦추기, 퇴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건강을 지탱시키는 활동에 계속 참여하기,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기를 제안했다(Davey, 2002:97).

4. 조사방법

지금까지 노인과 독립의 개념을 연결 지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독립이 노인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차치하고, 독립은 노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련된 자료나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현상을 이해하고 또 조사의 주제가 되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에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조사방식보다 질적인 연구가 적절하다. 최근에 노인, 노화와 관련된 조사에서 질적 접근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노인들 자신이 노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지배적인 양적 조사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Murry and Longino, 1992: 144)는 주장 또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독립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고, 조사대상층 또한 그 개념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심층적인 질적 인터뷰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해 노인이 인식하는 독립의 의미와 의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사전에 모두 확정되지 않고 인터뷰와 병행하여 선정되었다. 대상자 선정 지침은 연령, 성별, 가구형태(자녀동거, 자녀와 별거 가구) 정도만을 마련했을 뿐, 가능한 한 다양한 노인들의 인식을 수집하기 위해 그 이외의 기준은 엄격히 규정하지 않은 채 개방적으로 열어두었다. 그리고, 인터뷰 또한 사전에 충분히 상세하게 마련된 지침을 갖고 들어가기보다는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 방식이나 질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는 ‘독립’이나 ‘의존’의 개념을 연구자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인들이 그러한 개념이나 문제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탐색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대상자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질문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에 있었다.

연구자들은 독립과 의존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질문 방식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독립이나 의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기술해 줄 수 있었다. 이는 이 개념들이 그들 삶과 그들 사고 과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응답의 초기에는 독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자신들의 경험과 주관적 인식에 의거해 그 의미들을 풀어나갔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한두 명을 인터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세분할 필요가 없으며, “삶의 질”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립과 의존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고, 또 보다 풍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지 인터뷰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연구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가능한 한 노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청한다는 지침 정도를 마련하였다. 즉 우리는 독립과 의존,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전체도 갖지 않고 들어갔으며, 단지 노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 노인들에게 있어 독립, 독립적인 생활의 의미, 노인 사생활의 의미, 노인 의존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경험과 주관적 의미를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지속적인 비교와 반복된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노인들의 진술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범주화해 나가는 작업이 주가 되었다. 한 명 한 명의 인터뷰 자료를 통독하면서 개괄적인 범주를 머리 속에 구성해 나갔으며, 다른 응답자의 인터뷰 자료로써 그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범주를 확대해 나갔다. 새로운 범주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 앞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념의 재배치와 재조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범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매우 지루하지만 흥미로운 작업이었는데, 범주를 표현할 적절한 주제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범주는 가능한 한 연구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기보다는 노인의 진술 속에 표현된 용어로써 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5. 조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는 현 노인 세대의 독립과 의존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60대, 70대, 80대에 골고루 걸쳐 있었는데, 60대가 4명, 70대가 3명, 80대가 3명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여성 노인이 6명, 남성 노인이 4명이었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가 5명, 고졸이 4명, 대졸이 1명 있었다. 독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주형태를 볼 때, 혼자 사는 노인이 1명, 배우자와 단 둘이 사는 노인이 1명, 미혼자녀나 이혼자녀 또는 손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노인이 5명, 기혼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이 3명이었다. 노인의 결혼 상태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5명, 현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상태는 노인들 자신의 경제력보다 가구 전체의 경제 수준으로 평가해 볼 때, 5명이 중간 정도의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간 이상의 경제적 상태에 있는 노인이 2명, 저소득층의 노인이 3명이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여부를 보면, 직장(경비일)을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노인은 총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남성 노인이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남성 노인 1명과 여성 노인들 대부분은 노인복지센터나 교회 노인대학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건강 및 기능상태는 노인성 질환을 한두 가지씩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능수준은 일상생활활동(ADL)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높음으로,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간의 수준으로, 그 이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연령	성별	학력	가구구성	직업	배우자	경제	기능·활동상태
A	74	남	대졸	노인부부가구	무	유	중	높음(친목활동)
B	78	여	초졸	노인1인가구	무	사별	중하	중간(교회, 노인대학)
C	85	여	중졸	동거(기혼자녀)	무	사별	중	낮음(노인교실)
D	61	여	고졸	동거(이혼딸)	무	유	하	중간(주로 집안살림)
E	64	남	고졸	동거(미혼자녀)	자영업	사별	중	높음(현재 경제활동)
F	68	남	중졸	동거(미혼자녀)	경비	유	하	높음(현재 경제활동)
G	69	여	초졸	동거(기혼아들)	무	사별	중	높음(노인학교)
H	83	남	고졸	동거(이혼아들)	자영업	유	상	중간(현재 경제활동)
I	79	여	고졸	동거(손자녀)	무	유	중	높음(노인대학)
J	82	여	초졸	동거(기혼아들)	무	사별	중상	낮음(교회)

2) 결과 분석

(1) 독립의 조건에 대한 인식

노인들이 독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건강, 경제력, 배우자, 친구, 일이 그것이다. 이들 요인들은 개인에 따라 강조점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노인의 경제력과 건강, 친구와 같은 요인은 모든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먼저, 노인들에게 있어 경제력은 자립기반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체면치레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었다. “나가서 친구한테 대포라도 한 번 사줄 수 있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되지요”(E), “자기 교통비를 쓴다던가 친구들 모임에 회비를 낸다던가”(H), “돈이 많다고는 남한테 꾸러 안가는 정도”(B)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건강은 모든 노인들에게 주된 관심사로서 경제력만큼이나 빈번히 언급되었는데, 건강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기저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도 물론 있었지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래요. 자식한테 피해 안 줄려고요.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나이가 드니까 자식한테 피해는 안 줘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요”(G), “우선은 죽을 때까지 건강해서 남한테 많은 도움을 받지 않고 의연하게 살겠다는 정신이 필요해요”(D),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자식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B).

건강이나 경제력과 더불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독립의 주요 조건으로 지적한 것은 친구관계였다. 독

립해서 혼자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구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친구가 있어야 돼. 늙어서 혼자 살려면 친구들하고 서로 속에 있는 말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아픈 얘기도 하고. 친구는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가 더 필요한 것 같아”(B), “이성도 좋고 동성도 좋고 벗이 있어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A),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절실히 느껴요”(D).

경제력이나 건강, 친구와 같은 요인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항인데 반해 배우자와 일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었다. 주로 남성 노인들이 여성 노인들보다 배우자와 사회적 일을 노년기의 독립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안하는 경향이 많았다. 남성 노인들은 거의 모두가 노년기에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배우자를 들었다. “남자나 여자나 꼭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이 70을 넘어서도 짝을 자꾸 찾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A), “두 노인네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할아버지만 혼자 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노인들 혼자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할머니가 있어야 밥이라도 끓여 먹고 그러지요”(F). 이는 남성 노인들이 여성 노인들보다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일과 관련해서도 남성노인들은 주로 사회적 활동이나 공식적 직업으로서의 일을 주요한 조건으로 지적한 반면, 여성 노인들은 비공식적이고 여가 중심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또 현 세대의 여성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요인에 대한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 노인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독립의 의미

노인들에게 있어 독립의 일차적 의미는 경제적 독립과 공간적 독립이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공간적 독립을 의미하였는데,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공간적 분리가 독립의 대표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독립은 이러한 물질적, 공간적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의미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독립을 사생활, 자존감, 자율성, 자유 등의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독립은 사생활이 보장되고 그들의 삶과 경험이 존중되며,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는, 그리고 집안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삶을 의미했다. 각각의 하위 개념들에 부여하는 강조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 개념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독립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먼저, 노인들의 진술 속에서 독립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된 개념은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였다. 노인들은 독립을 통해 사생활이 보호되기를 원했는데, 사생활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 동안 살아온 생활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취향 그런 것들을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독립된 생활의 하나가 아니겠어요?”(A), “눅고 싶으면 눅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그게 자유지요”(B), “친구들을 눈치 안보고 아무런 제약을 안 받고 자유롭게 만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사생활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H). 사생활의 자유를 원하는 노인일 수록 자녀들과 심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되길 원했다. “혼자 사니까 서로 간섭 안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속상해도 끄끔 앓고 그저 자식들 하는 대로 살지요”(B),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서는 사소한 것이지만 뭐든 눈치가 보이고 하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C), “아들, 며느리하고 살게 되니까 내 자유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나 자유지요. 아들도 나가고 며느리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자유로운 거지요”(J). 노인들의 진술에서 보듯이, 공간적 독립은 사생활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사생활의 유지는 노인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느끼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인들에게 있어 독립은 또한 자존감, 인간 존엄성, 가치 있는 존재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일상생활에서 무시, 소외, 무관심, 비인간적 처우를 경험할수록 노인들은 독립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았다. 조사대상 노인들은 대체로 그들의 현재 삶이 사물화되고 대상화된 삶, 극단적으로는 죽은 송장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누구도 나를 상관 안 해요...내가 들어오나 나가나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집에 있다보면 내가 무슨 말 못하는 물건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살아 있는 게 죽은 송장 같아요”(C), “한 마디로 나를 어른 취급은 물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집에서 나는 없는 존재예요. 나한테 있어서 독립은 아주 이 집을 떠나서 이 무시와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예요”(J). 이렇듯, 독립은 노인들이 소외, 무시,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방편이었다. “독립이라는 것은 같은 모르겠지만 그 동안 내가 살아 온 생활방법이 자식들한테나 젊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자식들한테 더 많이 산 사람 대우받고 살아온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B),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귀찮은 노인네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세상을 더 산 사람으로 대우받는 거지요. 내가 아직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을 때 독립적인 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G)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노인들은 독립을 자신들의 살아 온 삶 자체를 무시당하지 않는 것, 인간으로서, 연장자로서, 부모로서 존중되며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율성 또한 독립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자율성은 말 그대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노인들에게 있어 자율성은 자신감, 통제력, 책임감, 자기 결정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 스스로의 결정에 만족하고 그럼으로써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G),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면 내 삶을 며느리가 통제하고 며느리 삶은 내가 통제하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목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무슨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G) 것, 다시 말해 자기 결정권의 유지를 독립이라고 인식하였다. 자신의 건강과 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율성은 또한 자기 자신을 통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노인이지만 마음을 약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먹고, 내가 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B)며 자기 통제를 언급했으며, “자식들한테 일일이 의지하지 않고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지요. 내가 내 몸을 해결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그러지 자식한테 다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해요”(B)라는 진술에서는 자기 책임이 강조되었다.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노인들은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데서 자신감, 성취감, 독립심,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독립을 자유의 의미로서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서의 자유는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속박이나 정신적 부담에서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과도한 역할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의미했다. “우선 내 자신도 가꾸어가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고, 이제 정말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생활의 굴레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싶고, 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나는 집안에서 나이보다는 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나는 노인들한테 독립의 의미는 무슨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처럼 환경이나 자식들한테 너무 희생하거나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D), “자식한테 의지하기는커녕 이 나이 되어서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니 맘 편하게 노후를 살지 못하고 방해받는 거지요”(H), “내가 살면서 이제 자유롭다고 느낀 것은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난 다음이지요. 내 책임은 다했으니까요”(B)라는 언급에서처럼 주로 미혼자녀나 이혼자녀, 손자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과도한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서의 독립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와는 달리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가 나를 귀찮게 굴거나 내가 저희를 귀찮게 해서가 아니라 심적으로 보기만 해도 나를 보면 안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 그것도 내 정신적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로 안 보고 무슨 특별한 때나 서로 반갑게 봤으면 좋겠어요…혼자 살면 눈치 안보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C) 정신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노인일수록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특히 부정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내가 늙고 추하고 애들 보기에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꾸부러지고 추해지고 하여튼 노인들이 젊은이들 같아요?”(C). 이러한 노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부터의 벗어나길 원하는 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

결국, 노인들에게 있어 독립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독립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할 때는 주로 자녀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는 것, 즉 자녀와의 분가된 형태, 경제적 독립을 의미했지만, 노인들의 삶에서, 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프라이버시, 존엄성, 자율성, 자유 등의 다양한 의미로 전환되어 인식되고 있었다. 즉, 어떤 이에게는 독립은 사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다른 이에게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율성을 의미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치를, 그리고 생활의 굴레나 속박, 사회적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이렇듯, 독립은 물질적 의미 이상의 정신적 능력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기저에 깔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노인과 노인이 아닌 다른 계층 간의 보편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3) 노인이 인식하는 의존의 의미

조사대상 노인들은 의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대해 공통적으로 반대의 견해를 표명했다. 의존

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자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것은 노인들에게 전혀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부정적으로 인식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사회가 노인의 의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의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노인들로부터 역할을 뺏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존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노인들이 자꾸만 의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노인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노인들을 힘없게 만들고서는 노인들은 의존적이라고 몰아가는 것 같아요”(C)라는 진술에서처럼, 의존은 사회적으로 강화되어진 문제일 뿐임을 강조했다.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의 4가지 관점이 작용하고 있었다. 의존은 인생의 이치이자 자연의 순리라는 관점, 인간관계의 정으로 바라보는 관점, 인생에서의 보람이라는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이 그것이다.

가장 지배적이자 보편적인 관점은 자연의 순리이자 인생의 이치로 보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인생의 이치가 그러한데 노인이 되어서 의존하게 되었다고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해요. 내가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지요”(A), “노년기의 의존은 사람의 이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의존을 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치에 어긋나는 거죠”(E),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건강은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건 자연스런 일이라고 봐야지 그걸 어떻게 나쁘게 볼 수 있겠어요”(C). 이러한 진술에서 보듯이 의존 그 자체는 인생의 이치이자 순리이며, 자연의 과정으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특정 일부 노인들은 이러한 지배적인 관점과 더불어 의존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의존을 사람관계의 정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과, 의존을 살아온 인생의 보람이라는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이 그것이었다. 먼저, “자식들한테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정이 그리운 거지. 노인들은 외롭고 해서 따듯한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예요. 의존이라기보다는 서로 돕고 어울려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B).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는 의존을 거창한 무슨 정치경제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과정일 뿐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인식은 의존을 자녀를 키운 보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의존하여 살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의존은 인생의 보람이라고 봐요. 고생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운 보람이지요. 나는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내 입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즐겁게 살았어요”(G), “나는 나이 먹어서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식 키운 보람이라고 생각해요”(J)라는 언급에서처럼, 노인들은 자신이 자녀들을 돌보고 키워온 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경험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으며, 또 자녀들을 잘 키워온 것에 대한 대가이자 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다른 노인은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했던 못했던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늙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지요. 노인이나 어린이나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것이 사회정의 아니겠어요? 그러니 늙어 의존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은 불의지요”(G)라고 언급하면서, 노인의 의존을 사회정의 차원에서, 즉 약자에 대한 사회의 의무

이자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노인들이 의존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은 사회 일반의 통념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의존은 사회적 짐이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순리이자, 인간관계의 정을 나누는 방식이며, 살아온 과정의 결실이자 보람이고, 나아가 사회가 약자를 돌볼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이 노인들의 중심된 시각이었다.

6. 논의

독립의 개념은 동시대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관련 사회정책이나 전문적 실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담론들은 현재 독립 개념을 중심적 지위에 놓고 있으며, 독립을 최대화시키려는 의지는 다른 모든 정치적 가치들을 압도하고 있다. 독립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지금까지 노인에게는 거의 적용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을 의존 개념보다는 독립 개념에 보다 밀접히 연관시키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독립의 관점에서 노인을 규정짓는 방식이 현대화(modernization)의 한 표상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로서 환영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독립의 개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독립의 의미는 무엇인지, 독립을 제안하는 많은 정책 담론들에서처럼 독립은 노인의 의존문화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인지를 노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들은 독립을 완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노인에게 있어 최상의 가치는 독립된 생활이었지만, 그것은 의존이 전혀 없는 생활, 그들 자녀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신체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 자존감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를 바라보는 최근의 정치경제적 관점은 이러한 의미와 가치, 삶의 목적이라는 보다 폭넓은 이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국가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설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존재론적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 노인세대의 인식은 자율성, 프라이버시, 자존감, 자유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 독립이 간단히 노인취업이나 고용정책만으로 접근되기 어려움을 말해 준다.

독립은 또한 사회적 고정관념처럼 의존의 대립된 개념이 아니었다. 노인들에게 있어 의존과 독립은 상이한 차원의 개념으로, 독립이 삶의 한 중요한 차원인 것처럼 의존은 의존대로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가 인터뷰한 노인들은 의존, 무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고정관념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는데, 의존 자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기보다는 의존을 부정시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그러한 고정관념에 대항하지 못하는 파위의 부재를 인식했다. 켄넬(Fennel)의 언급처럼, 의존/독립은 개인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관계, 네트워크의 질이며, 윌킨(Wilkin)의 말처럼 의존/독립은 이분법적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Dant, 1988: 182)을 보여 주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전적으로 외면하면서 다른 하나만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

이 있다. 사회정책 또한 경쟁적인 이데올로기, 가치의 선택 결과라고 할 때, 오늘날의 정책은 독립을 선택하는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독립과 의존은 인간의 총체적인 삶 속에서 모두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목표는 노인들에게 있어 독립을 촉진시키는 것만큼 의존을 노인들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의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존을 줄이는 식의 혹은, 독립을 촉진시키는 식의 양자택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의존과 독립을 모두 노인의 주요한 삶의 일부분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의 의존은 불가피하며, 의존 자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인들이 보기에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는 의존을 줄임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의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의존 그 자체가 피해지거나 줄여질 수 없다면, 그때의 적절한 초점은 의존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구의 사상은 이성/정서, 마음/신체, 남성/여성 등의 이분법적 언어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적 언어는 상호의존적이라기보다는 상호배타적이며, 위계적이다.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에 의하면, 전자는 후자로부터 의미를 취하며 각 쌍에서 전자가 비교의 기준이 되며 지식의 위계에서 더 높은 진리치를 갖는다고 보면서, 대립 위에 세워진 지식은 그 대립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유사성을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이분법적 대립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억압받고 가치 절하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Ray, 1996: 677).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독립과 의존 또한 독립은 좋은 것, 의존은 나쁜 것이란 인식을 지속적으로 깔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들의 인식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인들에게 있어 의존은 생애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의존이나 독립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며,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독립에서 의존으로의 이행 또한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결실로서 인식되었다. 현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안에서는 성인의 의존을 부정적, 독립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노인들에게서 의존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으며, 임의로 줄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의미하였다. 노인들은 오히려 왜 의존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되물고 있었다.

현재의 노인독립정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일반노인 사이를 구분한다. 종종 이 둘 간의 경계가 중첩되고 모호한 경향이 있지만, 정책 아젠다는 암묵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시민으로서의 노인을 구분짓고자 한다. 임파워먼트, 선택, 자율성, 통제 는 시민으로서의 일반 노인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면, 의존적 존재로서의 노인은 복지를 소비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비용이 되는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접근은 외면적으로는 노인 집단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인 집단 내에서의 집단간 격차를 강조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차별적인 집단의식을 조장한다.

독립, 선택, 참여 등과 같은 용어는 분명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노인의 독립을 최대화시키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노인집단에 대해서만 이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노인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

고 있으며, 사물화된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노인의 관점은 서비스 기획 및 제공에서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때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삶 속에 녹아드는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견해에 대한 주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참고 문헌

- 국무조정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
 김영화·임성옥·공정원 역. 2001.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 미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한울.
 김정석·김영순 역. 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서울: 나눔의집.
 U. N. 200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Barnes, C. 1991. *Disabled people in Britain: A case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or disabled people*. London: Hurst/BCODP.
 Bernard, M, and J. Phillips. 2000. "The challenge of ageing in tomorrow's Britain." *Ageing and Society* 20: 33-54.
 Dant, T. 1988. "Dependency and old age: Theoretical accounts and practical understanding." *Ageing and Society* 8: 172-188.
 Department of Health. 1989. *Caring for people*.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1995.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 London: HMSO.
 Department of Health. 1998. *Modernizing social services: Promoting independence, improving protection and raising standards*. Cm 4169. London: HMSO.
 Department of Health. 1999. *Caring about carers: A national strategy for carers*. London: HMSO.
 Henderson, J., and L. Forbat. 2002. "Relationship-based social policy: personal and policy constructions of 'care.'" *Critical Social Policy* 22(4): 669-687.
 High, D. M. 1991. "A new myth about famili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1(5): 611-618
 Jenkins, M. 2001. "Ethics and economics in community care." *Critical Social Policy* 21(1): 81-101.
 Gibson, D. 1998. *Aged care: Old policies, new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rry, J. W., and C. F. Longino. 1992. "What is justification for a qualitative approach to aging studies." *Ageing and Society* 12: 143-156
 Phillipson, C. 1998. *Reconstructing old age: New agendas in social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Ray, R. E. 1996. "A postmodern perspective on feminist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36(5): 674-680
 Vernon, A., and H. Qureshi. 2000. "Community care and independence: Self-sufficiency or empowerment?" *Critical Social Policy* 20(2): 255-276.
 Walker, A. 2000. "Public policy and the construction of old age in Europe." *The Gerontologist* 40(3): 304-309.

A Critical Review of the Meaning of 'Independence' in Policy Formulation: Redefining Independence and Depen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Rhee, Ka Oak

(SungKongHoe University)

Woo, Kug Hee

(Seoul Christian University)

Choi, Sung 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otion of independence is currently a focal point in public discourses in relation to the elderly. In most countries, the promotion of independence, not the alleviation of dependence, has been addressed as a priority goal in the formul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the term of independence is used in policy documents as if it were unproblematic. In most cases, policy documents do not offer a clear definition of independence, but generally the term is interpreted as self-sufficiency and health. Accordingly, in order to promot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concrete strategies such as employment,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direct payments are being introduced in many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se discourses and strategies, and attempts at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how independence and dependence is constructed in contemporary social policies for the elderly. It is our critical point that we explores the meaning of the independence and depen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lder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ended to construct the meaning of 'independence' as privacy, self-esteem, autonomy and freedom. They also tended to perceive and interpret, from their perspective, the 'dependence' as a natural law and process, affection among human beings, reward and fruit of their lives, social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sense current policies for the elderly have not fully reflected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Therefore, it is argued what is important in policy formulations for the elderly is to make efforts to reflect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on policy-makings for the elderly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dependence.

Key words : independence, dependence, privacy, autonomy, freedom, self-esteem, self-sufficiency, participation.

[접수일 2003. 10. 12 게재확정일 2003. 12. 27]